

베테랑 없어도... 비룡 잡은 영건들



한승택



홍건희



이창진



KIA, SK와 주말 3연전 2승1무... 포수 한승택 만루·동점 홈런 활약

‘대체 선발’ 홍건희, 6이닝 1실점·3회 연속 삼자범퇴 ‘호투’

이창진, 데뷔 6년만에 첫 홈런... 임기준·이민우·김윤동 ‘뒀문 든든’

KIA 타이거즈가 ‘문학 대첩’에서 기적 같은 2승 1무를 거뒀다. KIA가 14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3차전에서 4-2로 승리했다. 지난 12일 시즌 첫 대결에서 12회 연장 승부 끝에 4-4 첫 무승부를 기록했던 KIA는 13일 9회 2사 만루에서 타진 대타 한승택의 역전 만루포로 6-4 승리를 만드는 등 2승 1무의 전적을 만들면서 ‘반전의 주말’을 보냈다.

전날 만루포로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했던 포수 한승택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0-1로 뒤진 5회초 선두타자로 나온 한승택이 문승원의 137km짜리 초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겼다. 이어 9번 타자 박찬호가 우전 안타로 출루하면서 분위기를 이었다. 최원준의 타구가 중견수 앞에서 잡혔지만 이날 2번 타자로 나온 이창진이 다시 한번 SK를 흔드는 한방을 쏘아 올렸다.

이창진은 문승원의 2구째 143km짜리 높은 직구를 좌측 담장으로 보내면서 승부를 3-1로 뒤집었다. 이창진의 시즌 첫 홈런이자 지난 2014년 프로에 입단한 후 6년 만에 맞보는 데뷔 홈런이었다. KIA는 7회에도 ‘신예 선수’들을 앞세워 1점을 추가했다. 1사에서 9번 타자 박찬호가 좌중간 안타로 출루한 뒤 최원준의 우측 2루타가 나왔다. 이때 박찬호

가 홈에 들어오다가 아웃이 됐지만 이창진의 볼넷에 이어 류승현의 좌전 안타가 나오면서 2루주자 최원준이 홈에 들어왔다. 마운드에서는 ‘대체 선발’로 출격한 홍건희의 호투가 눈부셨다. 홍건희는 이날 시즌 첫 등판을 선발로 소화했다. 1회 첫 타자 고종욱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삼자범퇴로 경기를 시작한 홍건희가 2회 먼저 실점을 했다. 선두타자 정의운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한 뒤 이재원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로맥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최환의 중전안타로 선취점을 내줬다. 하지만 홍건희는 김성현을 상대로 유격수 앞으로 향하는 땅볼을 유도하며 병살타로 이닝을 마

무리했다. 3회에는 볼넷 두 개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4번 타자 정의운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운 홍건희는 이후 4회부터 6회를 삼자범퇴로 정리했다. 홍건희는 7회 연속안타로 등판을 마무리했지만 이어 등판한 고영창이 최환의 병살타와 김성현의 2루수 땅볼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홍건희의 시즌 첫 등판 성적은 6이닝 4피안타 3볼넷 4탈삼진 1실점이었다. 첫 승을 기록했다. 이어 임기준과 이민우가 8회를 책임졌고, 4-1로 앞선 9회말 등판한 마무리 김윤동이 1실점을 했지만 리드를 지키면서 KIA의 연승을 완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서석초, 춘계 초등야구 우승컵

서석초가 2019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초는 최근 분당리틀구장에서 끝난 2019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회장배(제15회 천안 흥타령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대회에서 대성초를 1-0으로 꺾고 우승컵을 가져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 수창초를 비롯한 7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부전승으로 첫 경기를 넘긴 서석초는 준결승에서 서림초를 8-3으로 제압하며 결승행 티켓을 차지했다. 서석초는 이번 우승으로 오는 5월 천안에서 열리는 회장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준우승을 차지한 대성초도 광

주 대표로 함께한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무등경기장에서는 2019년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제66회 전국 중학교 야구 선수권대회 예선 대회가 열린다. <2019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김도형(서석초) ▲우수투수상 : 최상훈(서석초) ▲타격상 : 이태훈(8타수 6안타 0.750·대성초) ▲최다도루상 : 김근화(3개·대성초) ▲최다타점상 : 이태훈(5타점·대성초) ▲감투상 : 이영수(대성초) ▲미기상 : 양유준(서석초) ▲감독상 : 양윤희(서석초) ▲지도상 : 김미옥(서석초 교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열리지 않는 골문... 아쉬운 무승부

‘K리그 2’ 광주 FC, 대전과 0대 0... 6경기 무패·선두 유지

광주FC가 6경기 연속 무패행진 속에 K리그 2 선두 자리를 지켰다. 광주가 14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시티즌과의 하나원큐 K리그2 2019 6라운드 홈 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 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마지막 상대’ 대전과 다시 만난 광주는 경기를 주도하고도 골대를 열지 못하면서 아쉬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승점 1점을 더한 광주는 3승 3무(승점 12)로 아산전 5-2 승리로 2위로 치고 오른 부산에 이파크(3승 2무 1패·승점 11)를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광주가 경기 시작 3분 만에 코너킥 상황을 맞는 등 전반전 위협적인 장면을 몇 차례 연출했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반 10분 골키퍼 윤평국이 길게 골 킥한 공이 김정환에 이어 윌리안에게 연결됐다. 하지만 골키퍼를 마주한 윌리안이 이를 넘지 못했다. 전반 16분 대전 김승섭의 오른발 슈팅을 윤평국이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긴 뒤 다시 광주가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전반 23분 윌리안의 발리 슈팅이 골키퍼의 편칭에 막혔고, 28분에는 펠리페가 헤더를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수 견제에 막혔다. 전반 38분 광주에 아쉬운 판정도 나왔다. 김정환이 ‘드리블쇼’를 펼치며 역습 상황을 연출했고, 중앙에 있던 윌리안에게 공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에 손에 공이 맞았고 비디오 판독이 진행됐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은 선언되지 않았다. 전반 막바지 오른쪽 측면에서 여름이 공을 누아 채 펠리페의 머리로 공을 넘겨줬고 최준혁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공은 골대를 비껴났다. 후반에도 광주가 경기를 주도했다. 후반 6분 이요름이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직접 골대를 겨냥했지만 골키퍼 품에 안겼고, 3분 뒤 이요름이 왼쪽에서 띄운 공이 박정수의 헤더로 연결됐지만 역시 공은 골키퍼 품에 안겼다. 후반 15분에는 여름의 힐패스가 박정수에게 향했지만 바로 슈팅이 이어지지 않았다. 후반 17분 문전 경합과정에서도 상대 골키퍼 박주원의 좋은 수비가 나왔다.

처음 선발 출장한 새 외국인 선수 윌리안이 재치 있는 움직임 선보였지만 6경기 연속 골에 도전했던 펠리페는 앞선 경기와 같은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다. 후반 20분 여름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띄운 공을 펠리페가 뛰어올라 머리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이 골대 위로 비껴나면서 경기장에는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후반 25분 여름에 이어 펠리페가 머리로 흘려준 공을 윌리안이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번에도 골키퍼에 막히는 등 이번이 상대 골키퍼 앞에서 공격이 중단됐다. 광주는 경기 종료 직전 조주영을 투입하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국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0-0으로 마무리됐다. 박진섭 감독은 “공격적으로 준비했는데 많은 찬스에 비해서 골이 안 터져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다”면서도 “(새로운 외국인 선수) 아슬마토프와 윌리안 두 선수가 충분히 자기 역할 해주고 팀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선수층이 더 두꺼워진 것 같고 팀이 강해질 것 같다. 펠리페 말고 다른 선수들도 공격적으로 골도 넣고 찬스를 만들어낼 것 같다. 그걸 더 보완, 연습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